

##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물 II -서울·미국 주요도시의 환경조각-

임 춘 배 \*

### < 목 차 >

- |                 |              |
|-----------------|--------------|
| I. 국내환경조각의 문제점  | IV. 環境彫刻의 실제 |
| II. 都市環境 구성요소   | V. 결론        |
| III. 建築과 彫刻의 관계 |              |

### I. 국내환경조각의 문제점

물질의 풍요를 느끼면서, 산업화에 끌려다닌 현실에서 인간성의 상실과 환경의 파괴로 인한 삭막한 도시에서 살게 되었고, 정서라고는 느낄 겨를도 없이 저질문화 공간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시달리게 되었다. 도시는 딱딱한 콘크리트 숲과 페인트의 범벅, 무채색의 환경으로 탈바꿈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도시생활의 질을 개선해 달라고 목청을 높여왔었다. 그러나 '환경의 질 고양'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하나둘씩 공해지대인 도심을 떠나고 있다. 특히 전원도시, 전원주택하면서 마치 전원이란 낱말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인양 착각하고 있다. 전원이란 자연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란 쾌적한 환경과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의 의미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 제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수

그 공간 안에 어떠한 목적을 띄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변공간과의 연계속에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환경예술속의 조형물은 현대에 이르러 실로 다양한 동기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즉 정치·사회적인 동기와 전통적인 의미의 기념비적인 성격 그리고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공간속의 미적공간, 탈박물관화된 예술품의 사회참여, 기능위주의 공간에서 벗어난 창조적 상상력의 미적유희공간 등이 그것이다. 환경속의 조형물은 단순히 주변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대이전의 조형물보다는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의미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야외조각이 출현한 첫번째 동기는 죽은자를 추모하거나 신을 찬양하고 명예에 대한 상징적인 image를 창조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 고대 sumer인들은 가뭄뒤에 비를 가져다주는 사자머리의 독수리상을 성전의 입구에 장식했으며, Egypt인들은 끝없는 행렬이 이어지는 장례식에 알맞은 조각상과 불멸영생을 얻기위한 조각상을 만들어냈다. Grece 야외조각은 신전을 장식함으로써 종교적, 상징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Roma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제작하여 제국의 권위와 왕이나 영웅등에 경의를 표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중세의 대성당 건축에 의한 기념비적인 조각의 부활은 종교적 상징적 기능과 교훈적·교육적인 기능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Renaissance시대에 이르러 조각은 건축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Michelangelo의 David상, Mose상과 같은 조각들은 인본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기마영웅상이나 우화적, 상징적인 주제를 가진 분수조각상들이 도시광장, 공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Baroque시대로 이어지면서 Andre Le Notre가 설계한 Versailles궁의 Gardenpark는 조각과 분수의 집합체를 이루어 인간의 자아를 표현한 선구적인 작품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조각상이 절정을 이룬 시기는 19세기초 거리에 기념물이 세워지면서 부터다. 그 당시에 대리석과 청동으로 된 영웅조각상이 두드러지게 급증한 것은 청동주조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와서 공공조각의 목적상의 변화는 더욱 명백해진다. 영웅이나 사건 또는 업적과 목표 등을 상징하는 작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적으로 주변환경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조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일상의 환경요소로서 시각적·경험적 체험을 통해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대중이 환경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만 그 호기심은 곧 충족되어진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에 이끌리는 것은 인간이 오래 전부터 환경의 object로써 그 창조된 표현물에 감응하고 매료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존재에 다른 차원을 첨가하여 주변환경을 보다 고상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외부환경에 조각을 제작하는 오늘날의 조각가들은 설치환경의 가치를 높이며,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대중에게 폭넓은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중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각품을 제작한다.

한반도는 고대에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의 환경이 연계되면서 근대를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은 현대라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것(뿌리)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표출되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환경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다. 그저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문자답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환경은 반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지금부터 약 1세기 전만하여도 우리환경과 부합되는 조형물들은 분명한 특징들이 있었다. 그 특징 중에서 흙(土), 돌(石), 나무(木)를 다루는 솜씨는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환경에 조화되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물과 조형물(조각과 부조), 그리고 도자기문화만 보더라도 우리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서 우리네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것이 그렇고,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시대적 특징을 대변하고 그지역(환경)에 이바지한다. 일례를 든다면 고려시대에는 청자문화, 조선시대에는 백자문화가 시대적 특성을 결정지우듯이, 전자는 불교문화가 근거하고 후자는 유교문화가 배경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세기 초까지도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에 순응하는 가운데 陰陽五行說을 들먹이면서 교훈적이고 철학적인 건축과 조형물을 창출해왔다. 그리고 건축 주변환경과 그곳에 세워진 조형물은 자연과 조화하려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국토방위를 위한 성곽의 土石文化의 조형성은 기능적인 형태미를 보여주면서 자연과 잘 순응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성곽을 출입하

는 건축물(성문)의 조형성과 건축물의 일부로 돌출된 부분의 조각들 역시 뛰어난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한양을 드나들던 四大門과 문 안의 중심에 위치한 보신각의 형태는 조형성과 기능성을 겸비하면서 교육적인 상징성까지 담고 있다. 건축물에 부착되는 현판까지 당대의 명필에 의하여 쓰여지고, 다분히 교육적인 뜻이 내포되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였다. 더욱이 지역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장승까지도 그 조형성이 극히 자연주의 형태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 건축물과 조형물의 배치와 형태가 지극히 예술적이다. 이처럼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던 우리의 조형물들이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의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우리고유의 조형환경을 도외시한채 경제적인 급성장에만 급급하다보니 전국의 도시(농어촌까지도)는 서울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었고 결국 이땅은 국적불명의 특징없는 도시조형물의 양산지가 되었다. 갈수록 우리의 독특한 조형철학에 바탕을 둔 조형물을 찾아볼 수 없도록 양적으로 비대해지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조형물들은 현대화란 미명아래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점점 더 우리고유의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생기없는 환경이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선진적인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다. 단지 혼잡하고 혼란한 조형물이 도시속에서 조화되지 못하고 제각기 노는 형국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시의 환경조형물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측이 빗나간 도시계획에서의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배치방법 및 1%의 건축법의 문제점, 그리고 건축물주변에 설치된 환경조형물과 환경조형물의 무질서한 위치설정과 조형성이 지역환경에서 조화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환경의 문제점은 '환경과 문화의 질'이 좋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3년(제주교육대학교 논문 제22집)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물(제주지역을 중심으로)」에 이어 우리나라 특히 1996년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조형물들을 진단하고 아울러 도시환경에서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건축조각에서 파생되는 건축과 조각의 조화로운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50개 도시에 설치된 도시환경 조형물의 우수작품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도시환경 조형물이 나아갈 조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都市環境 구성요소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갖추는 것이 물적 환경요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므로써 더욱 큰 효과와 아울러 더욱 아름답고 친밀하게 해보자는, 말하자면 물적 환경요소들의 질적향상을 지향하는 것이 시각적 환경요소의 의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꾸며 만드는것이 도시민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점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민의 편리성에만 치중하다가 더 나아가서 도시의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고 자기고장을 사랑하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그 도시에 살고 싶어할 정도의 애착심이 어느도시에서나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떠한 공간이든 그 자체는 공허한 물리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虛空間에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참된 의미의 공간으로 변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필시 도시의 주인공은 인간인 것이며, 그러므로 도시에는 거기에 생활하고 행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라는 mass속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여러가지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또 도시의 주역이 인간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이념으로서의 의미보다도 더욱 즉물적이며, 현실적인 의미가 내재하고 있다. 인간이 存在하지 않는 공간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생명의 요동도 느낄 수 없다. 인간을 소외하거나 인간에게 敬遠당한 공간은 폐허나 기계장치와 다를바 없으며, 그것들은 때로는 無機的인 감동이나 아름다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거기에 생생한 생활이란 <드라마>를 찾아 볼 수 없다. 시각적 환경요소는 도시가 그러한 無機的인 것으로 기울어 버리지 않도록 시민을 매혹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 또는 도구를 말하는 수가 많다. 예컨대 街路, 가로장치, 광장, 공원 등등과 더불어 도시의 생활과 활기의 기본적인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都市民-人間이 서로 호응함으로써 도시의 환경은 생기를 띄우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 街路(Street)

길은 가장 오래된 도시의 외부공간이며 가장 간단하고도 자연발생적인 다목적 공간이다. 또 그 발생의 과정이 통행하고 交歡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균중들에 의한 활기를 띤 공간이기도 하다.

#### 街路裝置(Street Furniture)

街路라는 선적인 공간속에서 공간과 인간이 서로 대화하고 호응하며 행위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가로장치라고 불리우는 가로상의 여러가지 존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의 존재물이 서로 제각기 자기주장만을 하게 된다면 전체로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지러워진다. 시선을 끌기 위하여 처음엔 자그만하고 얌전했던 광고는 자기주장하기 위해서 이웃것 보다 더 커져가고 요란스러워져서 드디어는 시각적 혼란을 이루고 만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에 떨려고 베풀별 크기와 색채와 모양과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는 거리의 간판들만해도 요란하면 할수록 다른 간판들을 자극하는 요인이되고 자기가 전체속에 매몰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간판은 눈에 띄건 말건 그다지 중대한 일은 아니지만 도시활동에 중대한 관련을 가진 게시물, 말하자면 안내판, 교통표시, 보행자보호시설 및 표식, 위험표시 같은 것들이 간판과 광고의 요란스러운 혼란속에 매몰해 버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지각되지 못하게 되있는 현실은 사회적 질서의 혼란과 위험에 직결되었느니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 위 예로 든 가로장치들과 공중전화Box, Bus Stop, 교통신호, 소화전 등은 하나가 특정한 기능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한다.

#### 廣場(Square and plaza)

도시의 街路가 사람들의 흐름을 전제로 한 공간이면 광장은 대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머무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전제로한 공간이다. 街路와 廣場의 형태를 볼때 하나는 흐름의 水路, 그대로 船長이고 하나는 港口와 같이 面的形態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街路는 하나의 광장에서 시작하고 다른 광장에서 일단 끝난다. 광장은 街路網의 結節點을 이루고 있으며 흐름의 매듭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잠시 거기에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져 가버린다. 이러한 공간은 마련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아담하고 친밀감 있는 외부공간을 이루기 쉬운 곳이라 하겠다. 그러나 몇일만 손질 않고 방치해 두면 쓰레기가 어느새 쌓여버리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광장은 그 근접지구에 관한 第一印象을 형성하는 동시에 近隣의 초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될 수도 있다. 조그마한 소광장에 비해서 대광장은 한 도시나 지구의 상징

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크다. 도시의 주요한 실외행사도 이곳에서 행하는 것이 예로 되었으며,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시청사, 교회, 공회당, 상가, 대규모사무소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수가 많다. 그 규모는 소광장과 같이 인간적이며, 아담하다 하기보다는 초인간적이며, 때로는 威嚴의 감각을 느끼는 수가 많다. 이러한 공간은 무슨 행사가 있어 많은 시민이 모여들었을때 비로소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한다.

### 公園(Parks)

도시의 외부공간은 대개가 그 바닥이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단 하나 공원만은 의도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흙과 잡초를 허용하며 자연과의 접촉을 도모한다. 도시의 별명이 되어버린 <아스팔트 정글>속에서 찾아보는 흙과 풀, 나무와 숲, 물과 돌 이러한 모든 자연물이 도시민에게 주는 즐거움과 휴식은 멀리 도시를 떨어져 찾아보는 자연과는 별종의 반가움과 즐거움이다. 사회가 기계화 되어가고 인간의 소외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공적인 도시환경속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할일이 마치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해야만 하는것과도 같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인간회복의 한 수단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도시의 스카이라인(Urban Skyline)

도시의 skyline은 도시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동시에 도시활동의 밀도란 본래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의 濃淡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를 전체적인 관련속에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위치와 부분이 도시라는 전체속의 어떠한 부분이며 또 어떠한 관련을 자기의 부분과 다른 부분, 자기의 부분과 전체가 갖고 부분이 명백치 못한 곳에선 개인이 도시라는 mass에 참여할 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이해와 공공의 이해와의 균형점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도시의 skyline구성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의 상대적 관계(위치 및 서열적 관련)를 시각적으로 명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에 Land Mark라고 부르는 요소가 있다. 균일한 형태나 환경속에서 뚜렷한 목표나 표식이 되고 있는 것을 가르킨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므로서 도시민은 머리속에 도시의 약도를 대충 상

기할 수가 있고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人間(Human)

도시환경을 말할때 인간을 환경요소의 하나로 들어 말하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도시를 말하고 문제삼을때 잊어서는 안될 요소가 인간이다. 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공기의 존재를 소홀히한 결과가 오염의 문제를 초래한 것과는 마찬가지로 自明의 전제는 자명하다는 이유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인간이 끼어 있지 않는 환경이란 정지하고 죽어버린 환경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한 환경장치가 마련되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사람의 그림자, 사람의 냄새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살풍경이란 문구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것이 될 것이다. 도시의 활기란 환경의 한 요소로서 인간이 끼어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며 사람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그 다양성과 활기의 농도는 짙어가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끌어들이고 환경과 일체화 시킬까 하는데 환경요소의 목표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1)

### Ⅲ. 彫刻과 建築

조각예술이 외형적인 면에서나 심미적인 면에서 건축을 위한 한낱 배경으로서 역할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창조와 원리와 감상의 기준을 갖춘 하나의 예술로서 독립할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단계의 조각과 건축은 미분화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각과 건축이 같은 기원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추적해 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상황아래에서 이러한 결합이 훌륭하게 이루어졌으며, 완전한 합일을 위해서 양쪽에서 양보한 것은 어떤 점인가, 그후 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또한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들이다.

종교가 발달되어 감에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image로 새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들기둥을 깎아내고 그안에 彫像을 새겨넣었다. 근동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1) 「空間」, 空間社, 1970, 10號, pp.28-31.



사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마치 알맹이를 품고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와도 같았다. 제물을 놓기위한 돌제단이 첨가됨으로써 그내부가 점차 확장되어 갔지만 이러한 사원의 내부는 항상 신비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구조 그 자체는 역시 하나의 거석으로 고안되었다.<sup>2)</sup> 신상을 모셔 두고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점차 내부공간을 만들기 시작함으로써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외부에도 공간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리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인도의 건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의 공간이 彫像들로 채워졌거나, 혹은 벽면을 장식없이 그대로 둔 채 벽감이나 창틀 속으로 彫像이 들어가면서 왜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양식의 양분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조적인 측면이 강조된 고전전통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조형감각이 강조된 동양전통 및 Gothic전통이다. 이것은 물론 각 양식의 특성이 지배적으로 강조될 경우의 분류이며, 모든 건축물은 어느 정도의 계산된 구조적인 측면과 조형예술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물에는 형태와 장식, 기능과 미적 효과간의 갈등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기하학적이거나 무기적인 형태를 우선하는 감각과, 자연적이거나 유기적인 형태를 우선하는 감각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Greece건축의 특징인, 극도로 정교한 음악적인 조화와 균형을 주던 이러한 요소가 붕괴됨에 따라 Doric식과 Ionic식 건축의 지극히 미묘하고 추상적인 선율의 흐름 역시 파괴되었다. 건축을 orchestra에 비유해 본다면 Beethooven의 제9번 교향곡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육성의 역할처럼, 조각은 신전의 외부 구조를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의 적재적소에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의 창조적 쫓점이 내부로 옮겨지자 이 모든 음악과 orchestra 역시 내부로 옮겨졌다. 건물의 외형쪽에다 미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원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감으로써 교회본당의 기둥은 단순한 형태로 바뀌었다. Basilica건축의 외부는 Pyramid 같이 작아지고, 장식없는 돌상자나 조개처럼 보여서 언뜻 보기에는 조각의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후 조각이 외형의 딱딱함을 어느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자 건축과 조각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 Gothic건축에서 건물의 모서리가 각 별히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모서리들은 조각으로 풍성하고도 부드럽게 꾸며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격자무늬의 탑과 여러개의 작은 첨탑으로 장식된 전형적인 성당을 비롯하여 매우 정교한 Gothic식 건물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직사각

2) Herbert Read, 「조각이란 무엇인가」, 悅話堂, 1984, p.16.

형의 벽면이 조각으로 부드러워졌고, 마침내 네모꼴이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되어 다시 건물전체가 조형적인 기념물로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곧 조각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조각에 있어서 억제력과 건축에 대한 종속성이 오히려 미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Ruskin처럼 Romanesque와 Gothic건축의 기둥머리 조각의 정교한 형태와 구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Romanesque양식의 Basilica는 건축과 조각의 완전한 결합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건축은 이미 중국, 인도, 또는 Gothic건축에서 보는 것처럼 부수적 장식도 아니다. 이와같은 완전한 결합이 어떻게 150년간이나 지속되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교회의 건물이 고전적인 신전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장식이란 전혀 무의미한 기계적인 부수물이었으며, 구조나 외형은 헛간과 같은 정도였다. 이렇던 것이 로마의 동쪽, 즉 Ravenna · Syria · Greece 등지에서 점차 발전하여, 마침내 Byzantine양식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Byzantine양식의 건축에서의 조각은 여전히 건축의 부속물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장식적인 기능의 역할 뿐이었다. 로마의 북쪽, 즉 France · Spain · England 등지에서 Romanesque양식이 발전되었다. Romanesque양식이 가장 번성했을 때의 조각은 이미 종속적인 장식물의 기능을 벗어나, 건축과 대등한 예술의 한 분야로서 독립되었다. 이것은 선교를 목적으로 그림이나 형상을 통하여 교리를 눈으로 보여주려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시기의 조각은 장식적인 글씨체, 금속세공 또는 이시대의 독창적인 산물인 Stained Glass와 일맥상통하게 되었다. 즉 Romanesque장식의 교회건축가등이 조각을 단순한 장식에서 교훈적인 목적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조각예술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다.

12세기의 비교적 짧은 1세기 동안의 조각은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예술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나 12세기의 Romanesque식 Basilica 교회 건물에서도, 장식이 없는 벽면은 그 나름대로의 미적 기능을 갖고 있다. Romanesque양식 교회의 독특한 점은 조형적인 조각과 단조로운 평면 사이의 기하학적인 조화, 즉 구상과 추상의 조화에 있다. 우리시대에 이르러 건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단조로운 평면의 추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현대조각과 현대건축 사이의 함수관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Romanesque양식이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현대 건축에서 Tympanum은 그 자취를 감추었고, 원주 또한 실령 있다고 해도 보통 철강으로 변하여 벽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전형적인 현대 건물이 조각가에게 남겨준것은 단조로움 뿐이다. 그리고 현대건축의 이상적인 표본으로는 단조로운 평면의 조화가 보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조각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조로운 벽면에 상감을 넣을 뿐이다. Henry Moore가 런던의 Bond street에 있는 Time life 건물에 심취한 조각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돌에 새겨진 그림을 벽면에 매다는 것은 바로 Romanesque시대의 조각가들이 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묘사한 회화적인 장면은 건물의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문제점은 건물의 평면이 주는 장엄한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적절한 장소에 그림을 부착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벽에 조각품을 부착시킨다기 보다는 벽면에 직접 조각을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Henry Moore가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그는 조각이 건축가가 이루어 놓은 구조적인 평면의 조화를 훼손하지 않음은 물론, 빛이 투각 사이를 통과할때 다른 면에 미치게 되는 영향까지도 세심하게 피하려고 했다. 마침내 조각이 건축물의 주제가 되는 평면에 매달려 있게 함으로써 완전한 일체가 이루어졌다. 주로 구상적인 작품들만 제작하던 Moore가 이러한 특별한 주제를 위하여 추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이 문제에 그의 완전한 이해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건축의 기능과 사실적인 장식 사이에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Pyramid에 몇개의 이무기들을 부착시킨다면 과연 Pyramid가 보다 더 훌륭해질 것인가? 현대 건축가는 날이 선 네모꼴의 건축을 좋아한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추상적인 조각이라 할지라도 '조각가에 의해서 선이 부드러워지는 것' 을 참지 못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능을 위주로 하는 현대의 건축과 조각은 오직 기하학의 원리에 의해서만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융화도 건축의 불후의 공적을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전체적인 통일을 위해서 조각가가 치루어야 하는 순응과 희생 때문에 조각작품 자체의 통일성이 손상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남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Ruskin의 "완전한 회화나 조각작품은 전혀 건축을 위한 장식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장식품이란 특별한 어느 상황의 그 한 장소에서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재확인함으로써 결론을 지어야겠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한 예술로서의 완전한 형태란 다른 예술과는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각 예술 분야는 별개의

재료, 별개의 과정, 별개의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매우 분명한 구별을 갖게 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이와같은 결론은 이론상으로 매우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독특한 완전성을 일부 파괴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융화를 창조함으로써 두 예술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Greece의 신전, Romanesque양식의 Basilica교회, Gothic성당, 그리고 현대의 기능 위주의 건물, 이들은 오히려 불후의 공적을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서, 이른바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상이한 예술의 제요소를 객관적인 구조로 결합하는 Opera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각각의 창작원리와 이행법을 알아야 한다. 건축과 조각이 각기의 완전성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는 공간을 이루는 것, 다른 하나는 공간을 점유한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대립은 서로의 날카로운 특징을 죽임으로 해소될 수 있고, 마침내 완전한 합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sup>3)</sup>

#### IV. 環境彫刻의 실제

##### A : 서울

###### 1) 강관욱 「救援」, 화강석, 무역센터(도심공항터미널)

인체의 강한 힘과 靈的인 세계로 인도하는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화강석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수직적인 건물의 배경과 반원형의 구도가 조화를 이룬다. 인체의 전체가 아닌 한부분이 이처럼 강한 구원의 Massage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경이롭다. 인간의 환희, 종교적인 모순, 번뇌, 마치 哲人들이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것처럼 묵시적인, 은유적인면에서도 강하게, 완고하게 구도자적인 자세로 주변을 압도하고 있다.

###### 2) 김오성 「滿潮」, 화강석, 서울은행

Nude조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직 친숙해지지 않은 Nude조각이 도심속에 세워지기란 아직까지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풍부한 Volume, 사실적인 얼굴표정, 부드러운 여체의 모습, 안정감있는 pose, 인체의 사실적인 비례에 근거하여 제작되

3) Ibid., pp.29-31.

었다. 화강석의 강한 재질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마무리와 기교가 돋보인다.

### 3) 전퇴진 「가족상」, 1980, 대리석, 한국외환은행 후문

조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정신 이전에 재료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나무는 나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질감때문에 사람에게 친근한 맛을 주고 들은 들이 지니는 견고한 맛때문에 믿음직한 맛을 준다. 이 대리석 조각에서 느껴지는 것은 인간미이다. 구성적인 공간 속에서 외로운 인간군상이 아니라 한가족의 모습을 잔잔한 미소로 볼 수 있게 어떤 외부의 압력이 없는 평온한 상태로 가장 자연스럽게 잔잔한 인간원형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수직적인 도심속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조형물이다.

### 4) 이일호 「번영」, 1988, Bronze, 잠실롯데백화점

작가의 개성보다 거리환경과 주변정서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었고 Academic한 조각이다. 율동적이면서 인간의 Volume감과 화려한 구성이 독특하게 느껴진다. 인체상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제작되어 내적으로 침잠해가는 image가 아닌 주변공간으로 팽창, 공간확산의 느낌을 주는 구성적이면서 장식성이 강한 조각이다.

### 5) 김찬식 「情」, Bronze, 현대상선사옥

기념비적인 성격의 조각으로 부담없이 대할 수 있는 순수조각이다. 건축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성격의 작품이며, 인간을 주제로 volume을 극도로 요약한 선과 면으로 내면적인 인간의 정을 형상화 시켰다. 좌우대칭적이면서 근본은 하나인 서로 상통하는 내면적인 인간정서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고 기계제작된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정서와 어울리지 않고 정원조각처럼 왜소함을 주어 흠으로 남는다.

### 6) 윤석원 「작은 승리」, 1986, Bronze, 일은증권(을지로)

이 작품은 수직적인 도심속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취해 성공적인 조형물로 평가된다. 전위주의적이면서 난해하거나 상투적인 냄새가 없으며 등신대의 크기로 제작되어 좌대없이 보도와 수평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이 가깝게 느껴지도록 배려하였다.

7) 김봉구 「숲속의 환상」, 1992, 현대백화점(삼성로)

도심 속에 인공적인 거대한 숲의 기체가 서있다. 사실적인 묘사보다 숲의 덩어리를 강조한, 육중하고 중후하게 느껴지는 조형미를 강조한 조각이다. 좌대부분을 제거시켜 작품을 설치했으면 정형화된 공간에서 이작품이 지니는 조형성과 환경조각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조되었을 것이다.

8) 김영중 「가족」, 1987, 화강석, 제일은행본점(을지로)

조각가들이 도시환경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4각의 면으로 구성되어진 자연스러움이 없는 각이진 현대 건축물의 한 공간속에서 기계적으로 정돈된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민들이 감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이작품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인체의 단순화를 통하여 인체의 선과 면,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작품이다. 음영의 효과를 위하여 세부를 각이지게 처리하였고 동공을 만들어 빛의 흡수를 극대화 시켰다. 서민적인 인간애보다 도시민적인 세련됨을 느끼게 하고 한편으로는 획일화된 감정의 메마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9) 문신 「飛翔 1987」, Bronze, 한호빌딩(종로)

조각의 표면은 맹인이라도 손으로 만져보면 느낄 매끄러움과 예리함, 그리고 민감한 감촉이 전달되는 기쁨을 느끼게 될 정도로 많은 노력과 인내로서 다듬어졌다. 생명 그자체, 즉 자연속의 식물, 혹은 곤충, 새 등이 형태와 유사하게 좌우균제를 생명의 원리로서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이 창조적 원칙의 귀결로 문신의 작품은 매혹적이며 거대한 보석과도 같다. 그리고 살아움직이는 object로 볼 수 있다. 주변공간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시공간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작품을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부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 이형우 「시간」, 1993, Stainless steel+화강석, 연세재단 세브란스병원

조형미보다는 건물이 지니는 의미에 더 중요성을 둔 기하학적인 작품이다. 연세의 머릿글자  $\circ, \Delta$  (  $\circ, \Delta$  )을 기초로 구성된 원, 삼각형의 단순한 형태로 우리민족의 고유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색채는 색동원색의 6가지 색상을 반복사용하면서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다.

## B: 미국

### 1) Eero Saarinen, St. Louise

아치형의 조형물은 1947년 건축가 Saarinen의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스케일로 인해 도시의 skyline을 바꾸어 놓았으며, 한도시의 image와 환경조형물이 시민들에게 주는 심미적, 지속적인 영향, 조형물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작품이다.

### 2) Alexander Calder 「Flamingo」, 1973, painted steel, Post office Building, Chi- cago.

먼데서 보거나 언뜻 지나쳐도 눈에 띄고 강한 자극을 받게되므로 공간의 성격이 전이 되어 통쾌한 공간으로 변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며 머무르는 장소성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민들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철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감처리가 미흡하나 철판을 직각으로 접합하여 색채변화와 음영을 형성하고 있고 태양에 따라서 변화한다. 주변건물의 유리창에 반영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의 침투와 확산에 의하여 복합투시공간을 형성한다.

형태나 색채가 자칫 조잡하거나 천박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음에도 이조각은 각이진 빌딩군 가운데서 색채적인 요소와 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주변환경을 확일적인 느낌에서 벗어나게 하여 강하면서 생동감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 3) J.Seward Johnson Jr. 「Taxi」, 1983, Bronze, Chemical Bank, NewYork.

Chemical은행의 정문에는 서류가방과 바바리 코트를 들고 택시를 가리키며 바빠 걸어나오는 흑인중년 남성을 보게된다. 뛰어나오는 동작의 순간을 포착하여 운동과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였으며, 모든운동을 시간으로 부터 의미와 가치가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형태에서 일반인들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능한 시야를 확산하여 확트인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조소적 공간영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만 이작품이 지니는 가치가 돋보일 것이다.

4) Arnaldo Pomodoro, Stainless steel+Bronze, White plains.

White plains시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높고 거대한 원기둥 모양의 Pomodoro작품이 미국스케일에 맞게 펍시주식회사의 조각정원에 서있는 것이다. 세계의 굴뚝모양은 각기 다른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기둥표면은 Bronze로 주조하고 오목한 부분에는 steel로 되어 있다. 그의 작품이 주는 massage는 자동화가 없어지고 기계적인 세계가 재출발하는 원시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grotesque하면서도 원시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공간의 정형에 변화를 주는 작품이다.

5) Henry Moore, Bronze, Indiana Columbus

인디애나주 Columbus시가 작은 도시라는 걸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시청과 같은 공공건물을 유능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공립도서관과 교회를 지었다. 이 작품은 도서관 앞의 정원에 있는 Henry Moore의 작품이다. 작품앞의 공간과 뒤의 공간이 전혀다른 세계처럼 미지의 세계로 들어와보는 듯한 흡사 원시세계의 주물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이편과 저편, 생과 사, 인간존재의 문제까지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낼것처럼 건축적이면서 조각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6) Claes Oldenburg 「빨래집게」, 1976, Stainless steel, Philadelpha

그의 모뉴먼트는 모두 크기에 있어 과감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하찮은 대상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의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는 거대한 빨래집게 형태를 취한 마천루일 것이다. 이 모뉴먼트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조각이 가진 매력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일부는 pop arts의 예술론처럼 평범하고도 너무도 눈에 익은 것의 심미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각들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당당함을 지니고 있다. 일면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를 표현한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모뉴먼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놀라움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도 주지만, 감동시켜 주지는 못한다. 현재의 한순간에만 집착해서 철저히 세속적인 그것들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까지 감동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 외형상 조형미나 스케일에 있어서는 현대도시감각에 어울릴지는 모르나 감각적이라는데서 도시조형물이 풀어야 할 숙제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 7) Tony Smith 「Cigarette」, 1966, painted steel, New York

Battery Park잔디위에 설치되어 있어 공간이 넓고 직접 배경은 수목이며 간접적으로 멀리 건축물이 보인다. 이 때 건축물은 비교적 원거리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건축의 자체형태가 원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은 직육면체의 여러 단위가 비교적 안정된 구도로 조립된 단순한 형태로서 수목의 자연스럽고 섬세한 가지와 바닥의 잔디가 이에 대비를 이루어 무게감을 더해준다. 동일색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음영 효과에 의하여 명도가 변화되고 중량감이나 운동감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하루중에도 태양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조형미를 강조한 무난한 조형물로 평가된다.

### 8) Pablo Picasso 「Untitled」, 1967, Painted steel, Chicago

흑색의 건물앞에 흑갈색의 대형철판작품이 설치되어 조형적으로 광장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거대한 규모로서(15m) 좌우가 비슷한 대칭형태이며 곡선형의 판과 선으로 구성되어 수평수직의 건물배경에 이질현상으로서의 대비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판재에 의한 정면성작품으로서 측면에서는 분산되고 양감의 처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넓은 면과 면의 방향에 의하여 빛의 각도에 따른 양감효과를 계획하였다. Picasso의 회화작품을 조각으로 옮겨 놓은 듯하며, 이것으로 인해 평면적인 느낌,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이 단점으로 남는다.

### 9) Barnett Newman 「Broken Obelisk」, 1967, painted steel, Houston.

Houston Menil 미술관의 조각공원을 건다보면 창문이 없는 흰건물을 보게 된다. 그 건물 풀장 앞에 Barnett Newman의 부서진 오벨리스크가 서있다. Houston의 찌는 태양과 푸른물에 하늘이 반사되어 끝이 날카로운 형태의 작품이 또다른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종교적, 철학적 관심을 평생에 걸쳐서 가시적 형태로 번안하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Newman은 1963년 부서진 오벨리스크를 착상하고 제작치 못하다가 4년뒤에야 마땅한 강철조립자를 만나서 제작했다. 그것은 사각형의 받침대와 그위에 피라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라밋이 꼭지점이 한곳에서 만나, 거꾸로 세워져 있는 부서진 오벨리스크의 꼭지점을 떠받치고 있다. 그 두개의 꼭지점은 정확하게 꼭 같은 각도(53°)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접합점은 하나의 완전한 X자형을 이루고 있다. 대담하게 상하로 놓인 두개의 오래된 형태가 하나는 무한한 안정성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천상을 향한 상승을 상징하여 반대되는 의

미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정신적인 갈망(pathos)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10) Lodd Hamrol 「Up town Rocker」, painted steel, Los Angeles

고가도로 밑에 있는 일층 언덕길의 고속도로 분리대위에 곡선형 양피를 놓고 그 위에 승용차 여섯개를 설치하였다. 고가도로나 바닥이나 모두 회색이고 질감도 단조로워 지루한데 적, 청, 황, 녹, 흑, 회색의 강한 여섯색의 승용차가 줄을 지어 곡선형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여섯가지 찬란한 원색의 강한 대비효과에서오는 복합된 보색으로서 강하고 화려한 특성을 가지며, 무채색에 의한 단점의 제거까지 고려한 배색효과를 계획하여 색채의 기능에 의한 조형공간을 구사하고 있다. 놓여진 위치,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조형적가치에는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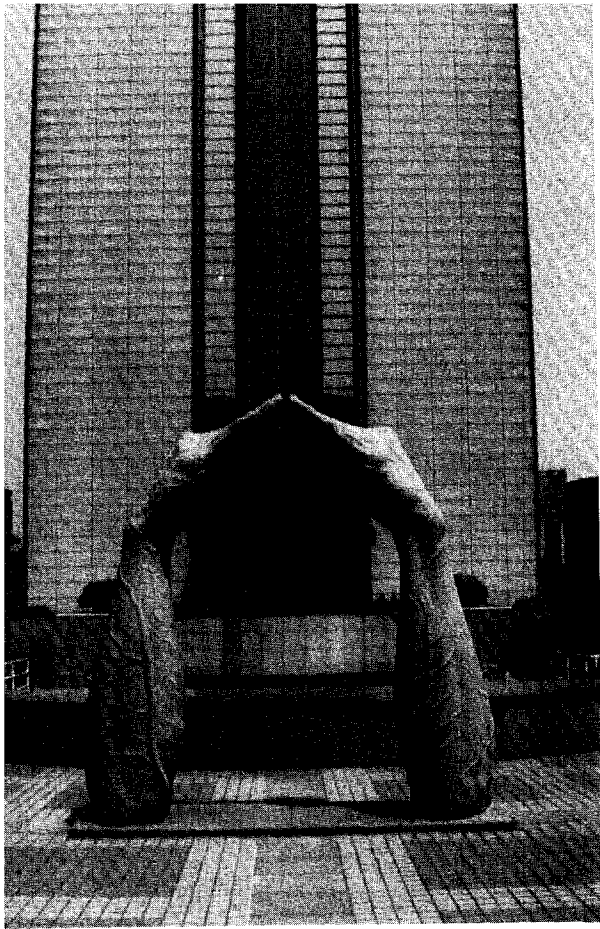
11) Francisco Zuniga 「Escultor」, 1981, Bronze, New York

아파트지역의 콘도미니엄 출입구 앞에 세워진 작품이다. 세대가 다른 세여인이 각각 다른 옷차림으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실적 표현의 작품이다. 인체의 pose로 보아 바쁘게 운동하고 있는 역동적 형태이며, 손이나 옷의 설명으로 보아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아 현대도시의 분화된 생리나 익명성 또는 다층화된 도시공동주택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시각언어로서의 표상이 된다. 좁은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였고 도로변에 있으므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박하고 정직한 역동성과 자기방향에 대한 자신과 긍지를 느끼게하는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12) Marc Chagall 「Four seasons」, Chic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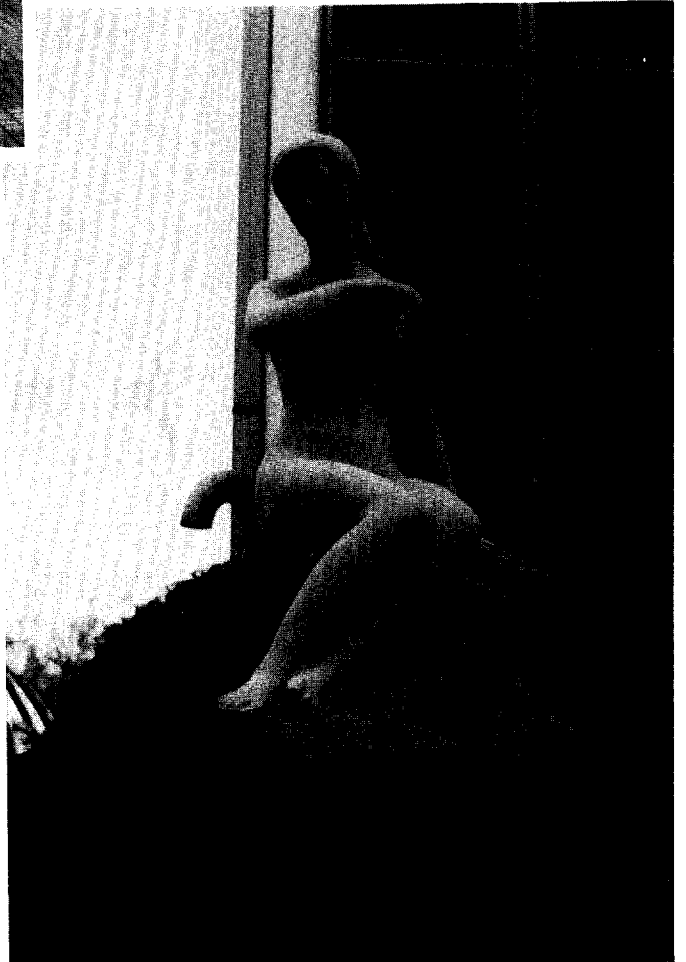
Chicago Dearborn Street는 도시조각의 진열장처럼 현대거장들의 작품이 집합소처럼 설치되어 있다. Calder, Picasso, Miro, Henry Moore, Chagall 등 500m의 짧은 거리에 줄을 지어 서있다. 이작품은 국립제일은행 빌딩 뒷편 큰 광장에 있으며 대리석과 모자이크로 4계절을 표현하고 있다. 고층빌딩에 가려진 작은공원은 언덕과 강 혹은 나무를 대신하여 Chagall의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image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사람의 예술가가 그의 내면세계를 이야기할 때의 방법은 개인적이며 독창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Chagall과 같은 개인의 꿈의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의미가 있을까? 그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전원풍경, 유대인이 속담, 꿈과같은 갖가지 추억이 하나의 불타는 듯한 환상으로 채워져 있다. 유년시대의 경험, 그러한 경험은 상상력에서 여러번 되풀이 되고 그모습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긴 생애동안 결코 달라진적이 없을만큼 Chagall에게는 회화적인 재산이었다. 원색적이면서 자유분방한 화면처리,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꿈의 환상 앞에서 환경조형물의 존재이유를 떠나 도시인들은 공동의 보물상자와 같이 유쾌하고 만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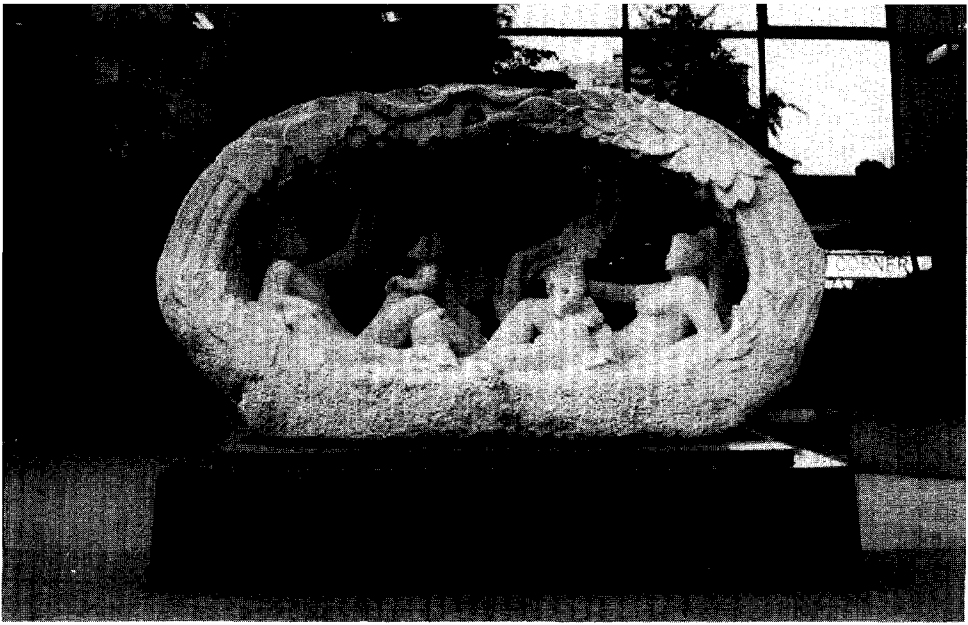


1) 강 관 옥 「救援」

A: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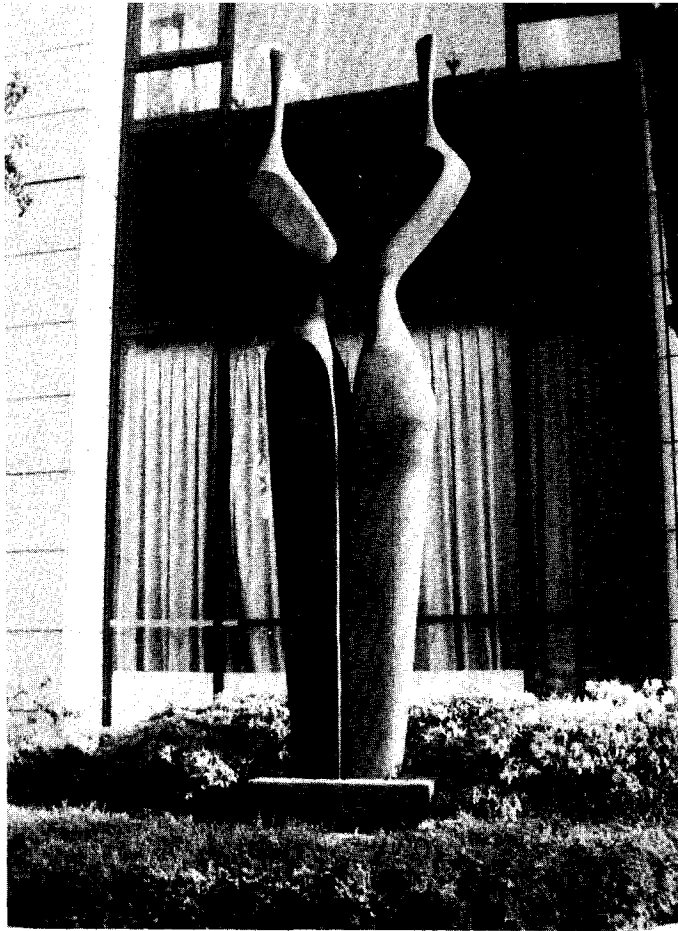
2) 김 오 성 「滿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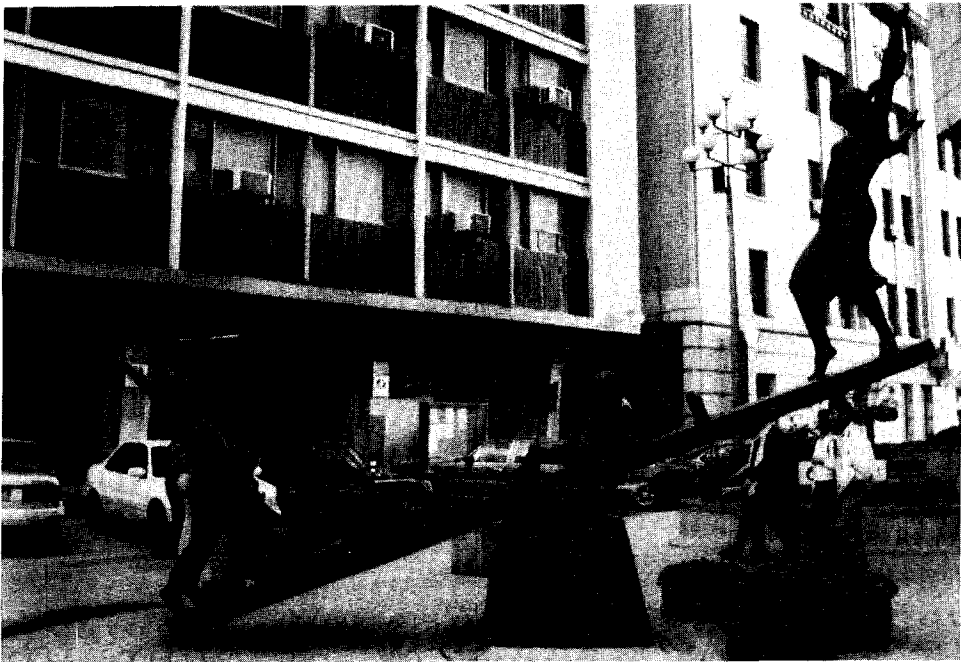
3) 전 회 진 「가족상」



4) 이 일 호 「번영」



5) 김 찬 식 「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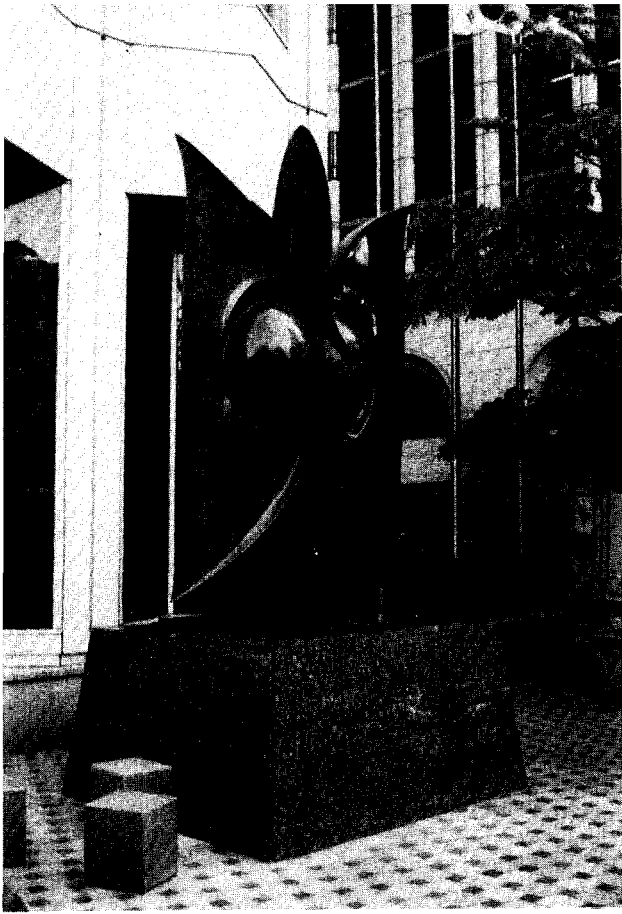
6) 윤 석 원 「작은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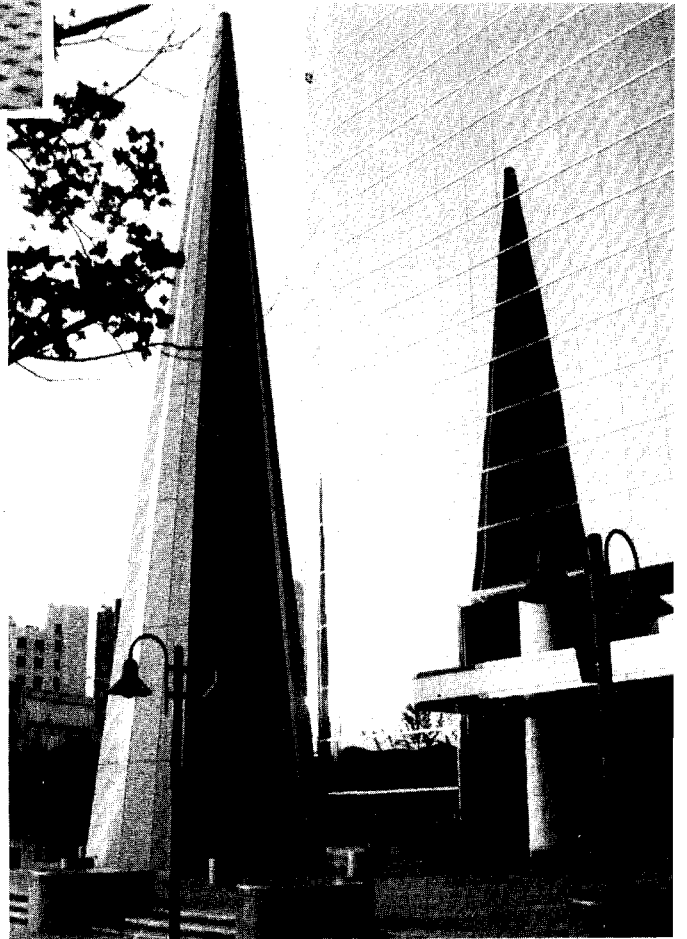
7) 김 봉 구 「숲 속의 환상」



8) 김 영 중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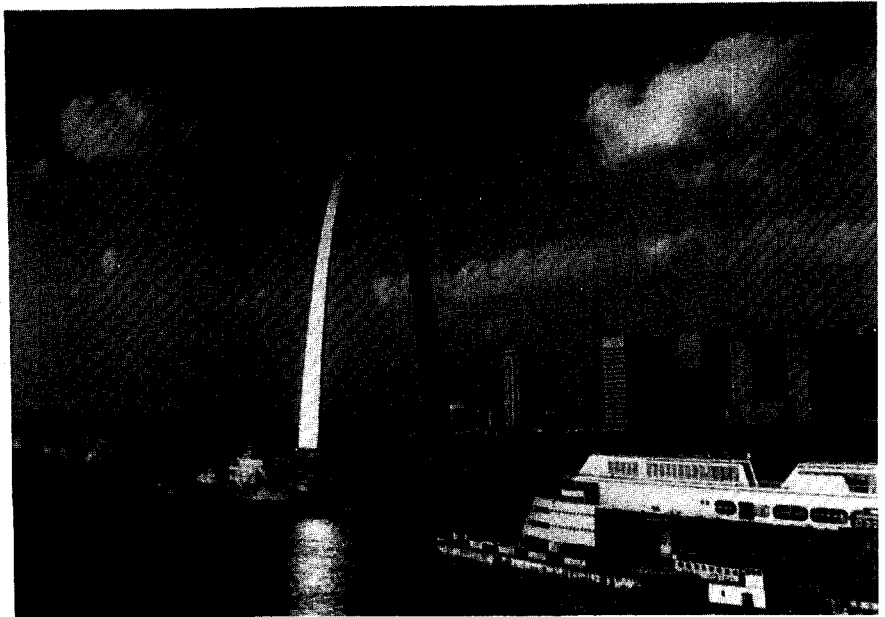
9) 문 신 「飛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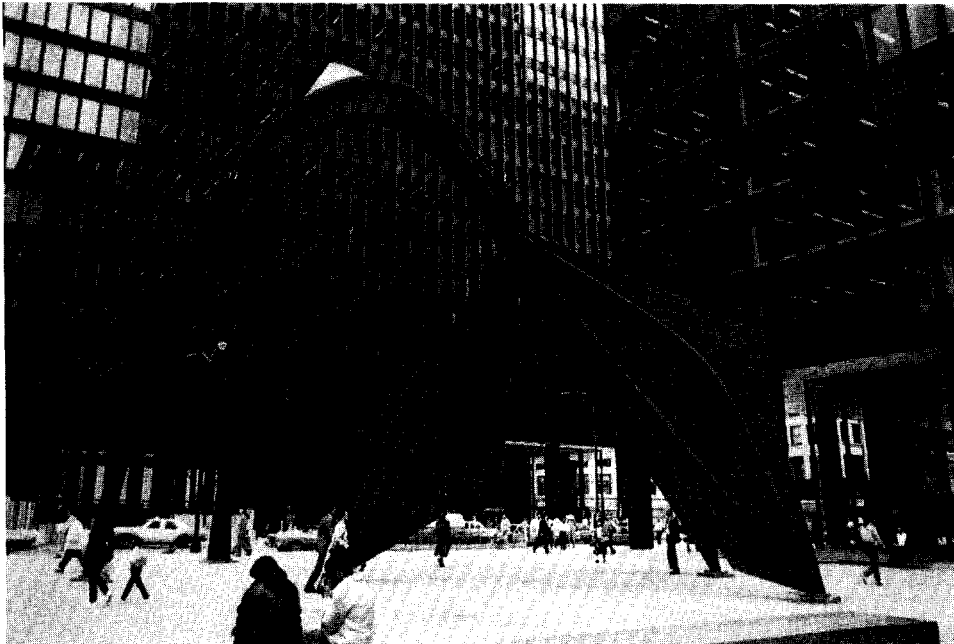
10) 이 형 우 「시간」



B: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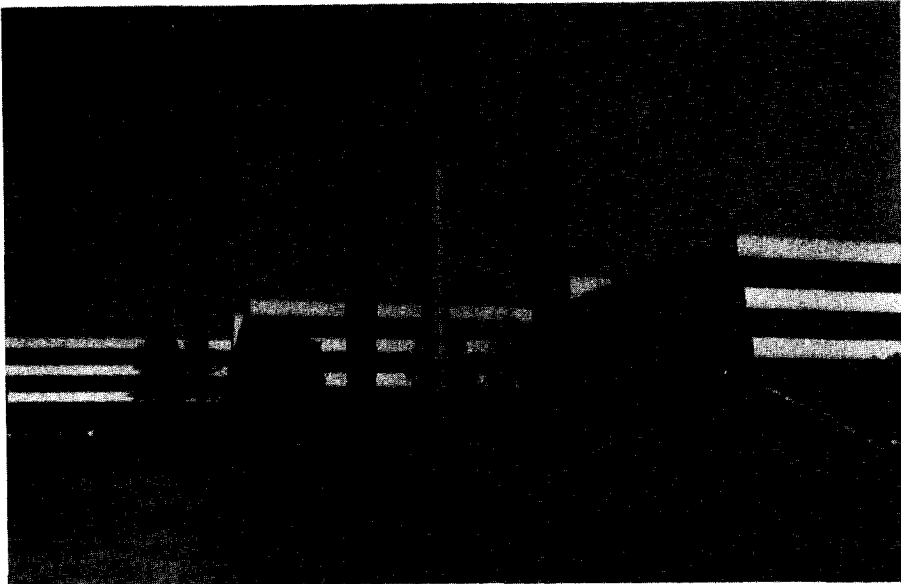
1) Eero Saari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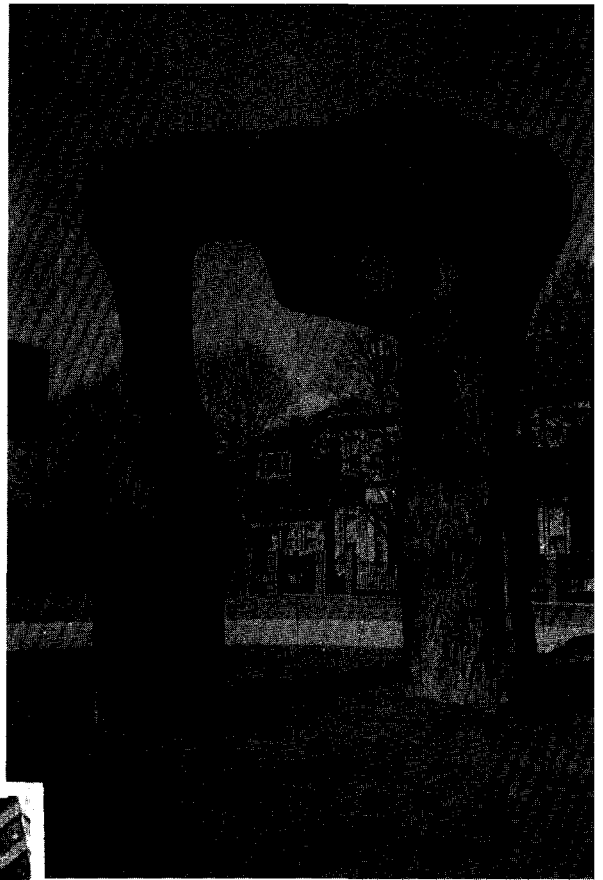
2) Alexander Calder 「Flemingo」



3) J.Seward Johnson Jr. 「Ta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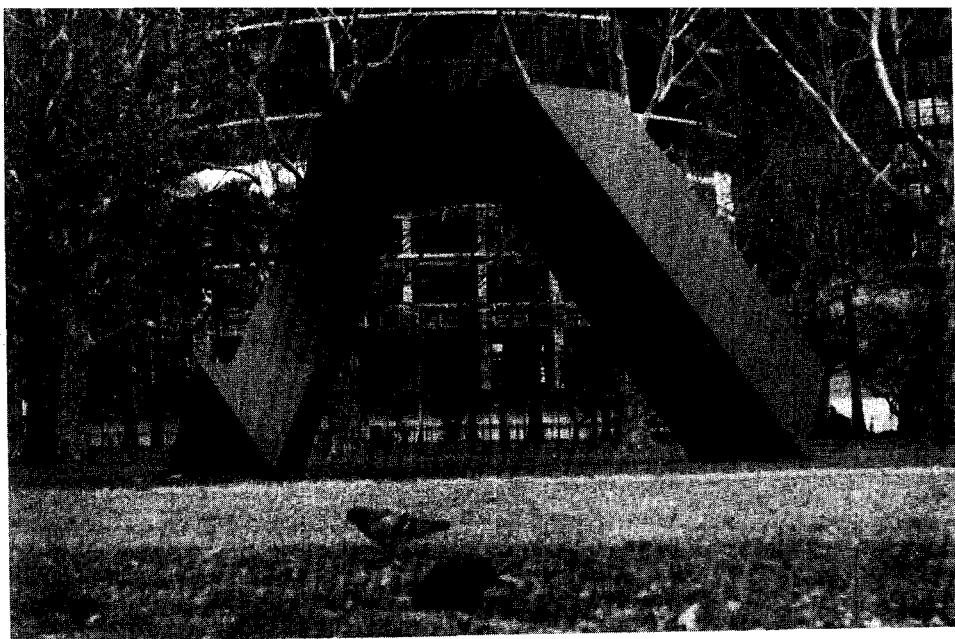
4) Arnaldo Pomodo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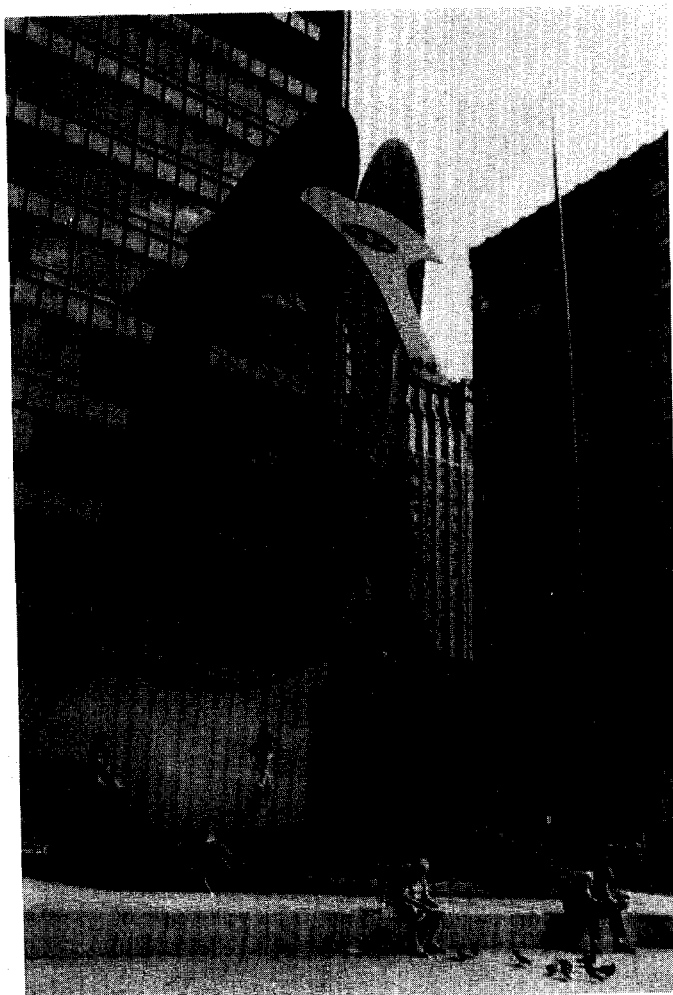
5) Henry Mo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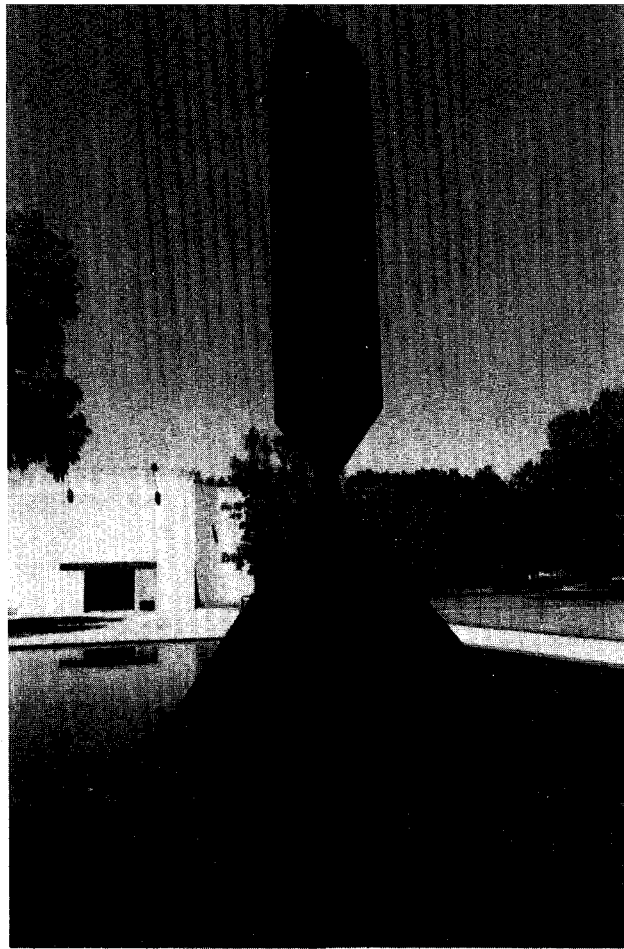
6) Claes Oldenberg 「빨래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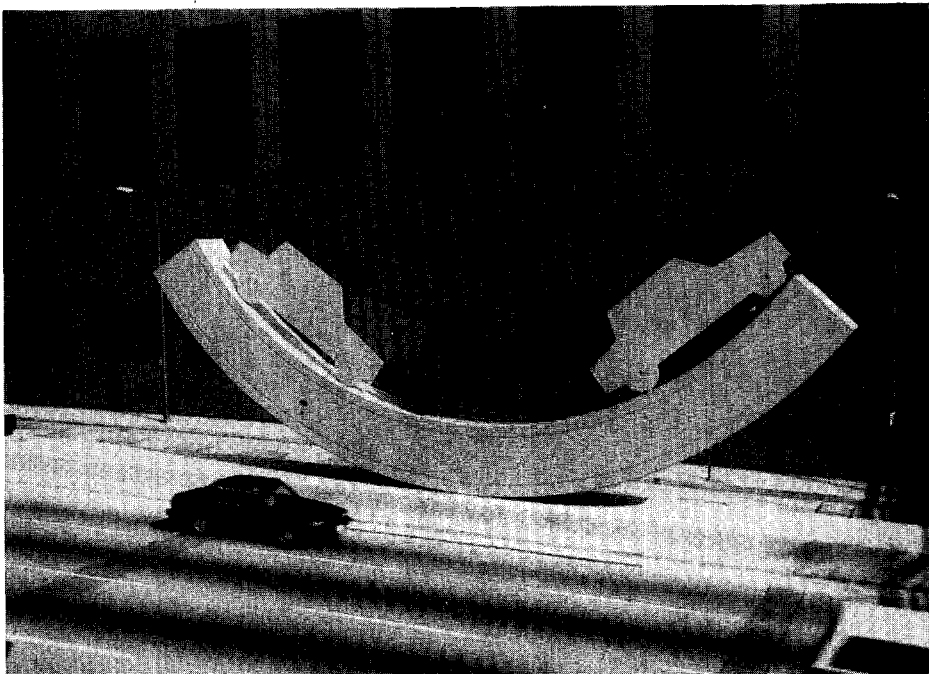
7) Tony smith 「Cigarette」



8) Pablo Picasso 「Untitled」



9) Barnett Newman 'Broken Obelisk'



10) Lodd Hamrol 'Up town Rocker'



11) Francisco Zuniga 「Escultor」



12) Marc Chagall 「Four seasons」

## V. 결 론

서울과 미국의 환경조형물을 비교하면서 환경조각의 본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대상이 무엇이며 어떤 성과를 기대해야 할 것인가를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조형물이란 환경속에 존재하면서 그 몫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형물의 대부분은 형식적이고 저질문화에 편승하면서 도시의 질을 낮추고 있다. 모든 문화의 중심적인 서울의 예만 보더라도 설치된 작품의 조형성문제, 장소의 문제, 색채, 재료선택,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면에서 부적격 조형물이 많았다. 실내조각이 야외로 장소만 옮겨지거나, 놓여진 위치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모퉁이나 조경수사이, 건물의 특성이나 거리주변정서를 무시한채 작가의 개성만을 강조한 경우등 이 모든 문제는 작가적 영향이나 양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미국의 조형물들은 여러모로 도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내 환경조형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징조형물과 환경조형물은 환경 계획적인 측면과 공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설치 또는 부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계획되고 설치된다는 것이다.

환경계획이란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개발·조경설계의 범위를 의미하고 환경공학은 물리적인 형태로서 토목·건축·전기·전자·기계적인 요소들의 과학기술을 의미하며, 환경조형물이란 계획된 환경에 놓여지거나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과 예술품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즉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구조물과, 시설물, 그리고 환경미술품을 총망라해서 도시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조경과 환경미술품을 대별하면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가로장치물과 녹지대 장치물과 같은 도시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조형성이 우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벽화나 모자이크, 또는 부조, 슈퍼그래픽, 환경조각, 기념비와 같은 것은 환경조형물로서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고 도시 분위기의 특성을 좌우하는 조형물은 토목과 건축공학적이고 물리적인 원칙에 우선하고 안전성과 교육성, 그리고 쾌적성을 주는 예술품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내 조형물들이 과학기술을 무시한채 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과 예술성이 연계되지 않고 설치된 조형물은 내구성과 경제성, 그리고 관리면에서 예산의 낭비가 오고

조잡한 조형물로 주위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특유의 조형물이 창출되어야 하고, 우리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환경조형물의 좌표가 결정되어야 하고, 외국의 모방에 그쳐서는 안되며, 철학적인 의미가 부각된 한국적 조형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단순하고 일률적이 아닌 변화무쌍한 가운데 통일된 조형물이어야 하고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다른 세대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인간적이며 미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각, 건축 등 장르를 초월한 공동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 참 고 문 헌

공간사, 공간47, 137호.

중앙일보사, 계간미술13호

미술세계, 1996.4,5호

Herbert Read, 李熙淑 譯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984.

Edward Lucie-Smith, 李烈模 譯 「現代美術의 動向」 창미서관, 1978.

Herbert Read, 金炳翼 譯 「圖像과 思想」 열화당, 1982.

H.W Janson, 金윤수 譯 「History of Art」 삼성출판사, 1978.

최병상 「Envirnoment and Sculpture」 미술공론사, 1990.

中原佑介, 이윤신 譯 「Modern Sculpture」 한국미술연감사, 1989.

Shoichiro Higuch 「Public Art(Urban Sculpture of 50 citiesin U.S.A)」 誠文堂新光社, 1990.

彫刻の 美術館 「Rodin, Henry Moore」